

**도덕과 이성은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스마일 카다레의 『부서진 사월』과 야샤르 케말의 『독사를 죽여야 했는데』를  
통해 본 명예살인을 중심으로**

이 정 일

**I. 서론**

호머(Homer)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지만, 그 내용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에피소드 역시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는 그리스 신화 속 악한이다.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철 침대에 억지로 누였다. 그리곤 침대보다 크면 초과한 길이만큼 잘라내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억지로 몸을 늘리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서사(narrative)는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현상이지만(Miller 66-79), 그 내용은 서사적 폭력(narrative violence)으로 가득하다. 서사적 폭력은 고대 그리스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나 중동 작가들의 작품에도 나타난다(Gana & Harting 1-10).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첫 아프리카 소설인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Things Fall Apart*)에도, 두 번의 살인이 묘사된다(61, 124). 하나는 의도된 살인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로 일어났다. 두 살인 모두 주인공 오킵코(Okonko)가 저지른 것이다.

동물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싸우거나 죽이지 살인이나 전쟁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엔첸스베르거(Hans M. Enzensberger)는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을 이렇게 지적한다. “인간은 계획을 세워서 같은 종족을 대량으로 죽이기 위해 열광적으로 노력하는 유일한 영장류다”(9).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다. 인간의 모순성을 손택(Susan Sontag)은 고통이란 주제와 연결시킨다. 손택은 『타인의 고통』(*Regarding the Pain of Others*)에서 현대적인 경험을 타국에서 발생한 전쟁 같은 재앙을 자신의 거실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전쟁은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정의 TV 화면으로 배달된다. “각종 전투와 대량학살은 ... 가정에서 작은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의 일부가 되어버렸다.”(Sontag 2004: 43) 사진과 영상은 현실을 증명해주는 증거물이다. 손택은 객관적인 기록인 동시에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스마일 카다레(Ismail Kadare)의 『부서진 사월』(*Broken April*)과 야샤르 케말(Yaşar Kemal)의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To Crush the Serpent*)는 서사를 통해 명예살인(honor killing)이라는 폭력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진실을 풀어낸다. 카다레는 알바니아를, 케말은 터키라는 다른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으나, 두 작가는 관습과 전통이 어떻게 우리 운명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덮에 걸리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유산을 상속받는다. 하나는 수직적인 것으로서 부모, 조상들, 전통, 혹은 종교적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것으로서 친구, 주변인, 이웃 같은 동시대인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 유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유산과 개인적이고 사적인 유산을 동시에 물려받는다. 유튜브를 통한 플래시몹과 한류는 동시대 문화가 우리의 자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히잡(hijab)과 여성할례에 대한 고수는 여전히 전통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선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이스마엘 카다레와 야샤르 케말의 작품에 주목한

다. 카다레의 『부서진 사월』에선 70년 전 우연히 시작된 살인에 대한 대가를 그조르그(Gjorg)란 26세의 젊은 청년이 치르고 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피의 복수를 행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케말은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에서 전통으로 굳어진 명예살인으로 희생되는 여성의 삶을 하산(Hasan)이란 아이의 시선으로 파헤친다. 그로르그와 하산은 문화와 배경은 다르지만 명예살인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용서와 포용이 배제된 문화에서 갈등과 복수에 개입하는 순간,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모순을 낳게 된다. 본 논문은 두 작품에 나타난 서사적 폭력을 통해 도덕과 이성이 관습과 전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며, 그 모색의 방법으로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배제와 포용』(*Exclusion and Embrace*)에 나타난 기독교 담론을 활용할 것이다.

## II. 카다레의 『부서진 사월』의 서사적 폭력에 나타난 명예살인

카다레가 구축한 서사 속 세계 『부서진 사월』은 알바니아 북부 고지대에서 벌어지는 피의 복수(blood feud)를 다룬다. 소설 속 서사는 1920년대 혹은 1930년대의 어느 해 3월 17일 날 시작한다. 지리적 배경은 북부 알바니아 산악지역이다. 소설의 제목에 ‘부서진’(broken)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주인공 그조르그 베리샤(Gjorg Berisha)의 죽음이 4월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조르그 베리샤는 제프 크리에키크(Jeff Kryeqyqe)를 총을 쏘아 죽인다. 그는 스물여섯 살에 살인자가 되었다. 그조르그가 제프를 죽인 것은 제프가 일 년 전에 그조르그의 형 메힐 베리샤를 죽인 데 대한 복수였다. 하지만 알바니아에선 이런 살인자를 그자크스(the Gjaks)라고 부른다. 이 말엔 관습법인 카눈(the kanun)에 따라 의무를 완수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살인행위를 ‘피를 회수했다’고 설명한다. 피의 회수를 위해 살인을 하는 그자크스는 일족의 전위병이자 죽음의 집행자이며 동시에 상대방 일족에게 가장 먼저 희생되는 희생자이다(41, 70).

이스마일 카다레는 2005년에 맨부커상(The Man Booker Prize for literature)을 수상했는데, 심사를 담당했던 존 카레이(John Carey)는 카다레의 소설은 알바니아 국가를 묘사한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일간신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마일 카다레를 설명하면서, 카레이는 “[알바니아]의 역사, 열정, 민담, 정치, 재난 같은 문화 전체를 지도로 삼고 있는 작가”라고 설명한다. 그는 소설에서 묘사하는 인물들은 가문과 마을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연대감은 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고지대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의 피의 복수에 참여하고, 카눈에 따라 관습을 지키려는 노력은 통합된 국가를 지키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부서진 사월』에서 고지대 사람들은 가슴을 옥죄는 불안과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통을 고수한다. 전통이란 관습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피의 복수 혹은 근친복수(vendetta)를 말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다. 이런 규칙들은 카눈에 담긴다. 카눈은 몇 세기를 거쳐 내려온 명예를 다룬 법전 같은 책이다.

『부서진 사월』은 복수와 살인을 격려하는 관습법은 알바니아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집단적인 노력임을 암시한다. 민족적 정체성과 전통이란 이슈는 카다레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 슈워츠(Stephen Schwartz)가 지적하듯, 『부서진 사월』은 3권의 소설들—*Doruntine* (1990), *The Three-Arched Bridge* (1997), *Spring Flowers, Spring Forest* (2002)—과 함께 오래된 발칸의 전설을 서사화한다. 이 4권의 작품들은 피의 복수라는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Hiding from Humanity*)에서 거의 모든 인간사

회에 편재하는 개인이 지니는 대상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으로 학습된다고 설명한다(2015:176). 카논의 학습과 적용엔 소설 속 등장인물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4명의 인물들 - 그조르그, 마르크 우카시에르(Mark Ukacierra), 베시안(Bessian), 디안(Diana) - 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피의 복수를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조르그는 피의 복수를 실행하는 인물이다. 마르크 우카시에르는 피의 관리인이다. 오르쉬의 성에서 피의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베시안과 디안은 신혼부부로서 피의 복수의 관찰자이다. 볼프는 무관심이 증오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2012:117), 베시안 부부는 피의 복수를 관찰만 할뿐 서사 속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조르그는 살해자(피를 회수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고, 제프는 희생자(피를 회수당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이 둘은 모두 70년간 이어져온 복수 메커니즘의 희생자이다. 살해자와 희생자 모두 죽음의 낙인을 갖고 있다. 그것은 둘 다 '검은 리본'을 단 것으로 상징된다. 살인 사건에 연루된 베리샤(the Berishas) 가와 크리에키크(the Kryeqyqes) 가는 명예(honor)란 이름으로 70년간 피의 복수를 이어왔다. 이 모든 것은 70년 전 한 남자가 그조르그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던 어느 추운 날에 시작되었다. 관습에 따라 식구들은 그를 집안으로 들고 먹을 것을 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알바니아 고지대에서 손님은 반신(半神)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몇 차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전(全) 세대의 생존이나 소멸이 좌우될 수 [있는]"(117) 신성한 존재이다. 등장인물 베시안은 작가로서 산악지방의 피의 복수가 갖는 메카니즘에 관심을 갖는다. 신혼여행지로 산악지역을 택한 베시안은 아내 디안에게 손님 의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어깨에 배낭을 짊어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길손이 우리집 대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는 우리의 손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맡기며, 그 순간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물, 범할 수 없는 지배자, 입법자, 이 세상의 불꽃으로 변하는 거지. 이런 변신의 돌연성이야말로 신성의 특성이라 하겠지. (117)

손님은 머무는 동안 가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된다. 관습법은 '환대에는 의무가 따른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주인은 최상의 호의를 베풀어야 하고, 자신의 경계선 안에 있는 한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 만일 손님이 머무는 동안 살해되면 그 복수는 주인의 몫이다. 알바니아 고지대에선 손님이 불행을 당하는 것이 치욕중의 치욕으로 여겨지기에, "자신의 아버지나 아들의 피의 회수는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의 피는 그렇지 않다."(118) 손님에 대한 환대는 타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관습이란 전통이 폭력을 사회적 정의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손님의 불행(죽음)에 대한 복수는 삶의 복잡성이 어떻게 치명적인 악의 순환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험들을 함께 생각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권과 사법권이 작동하지 않는 산악지역이란 고립된 지역에서, 도덕적 판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제1장에서 그조르그는 제프가 다니는 길목에 매복한 채 기다린다. 해는 기울고,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벌써 스무 번째 매복을 하고 있다. 그가 두려운 것은 상대방을 죽이지 못할까 봐가 아니라 죽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회한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다.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지적하듯, 혐오(disgust)와 수치심(shame)은 분노나 두려움과 달리 개인의 선택과 생각을 가로막는 제도적 토대로 악용될 수 있다. 누스바움은 감정도 분명 사고를 담고 있고, 혐오와 수치심을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으로 해석한다(13, 25). 매

복한 곳에서 “내가 뭘 하려는 거지?”(11)라고 그조르그는 되된다. 그는 회한과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렇게 되된다. “쏘는 것은 너지만 살인을 하는 것은 충이다.”(10) 그조르그는 관습법에 따라 살인하지만, 총을 쏘기 전 희생자에게 경고한다. 또 죽음을 확인한 뒤엔 희생자의 머리에 죽은 자의 소총을 기대어 놓는다. 심지어 상복을 입고 희생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식사도 대접받는다. 전통을 지키는 행위는 개인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다.

그의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가, 오백년, 아니, 천 년 간에 걸친 세월 동안 그의 모든 조상들이 몸을 뺄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도 결코 도망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22-23)

전통에 따르면, 망자의 셔츠는 보이는 곳에 걸려야 하며, 핏자국이 노랗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가족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 2장 회상장면에서 그조르그는 피의 복수를 행하지 못할 때 아버지의 반응을 떠올린다. “피가 누렇게 바래기 시작했어. 망자가 복수를 원하는구나.” 아버지는 그조르그가 피의 복수 의무를 늦춰서 가족의 명예를 실수시켰다고 압박한다. “그조르그, 너는 너무 지체했다. 우리의 명예, 특히 너의 명예는 .....” (65). 이런 의무는 강제적이다. 이것을 소홀히 할 경우,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집을 징계한다. 마을 전체가 피의 복수 의무를 실행 의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그 마을 자체가 파괴된다(61). 일단 살인이 벌어지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희생자는 가해자를 응징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어 다시 가해자를 응징한다. 이것을 마을이 감시하고, 이 마을을 이웃 마을이 감시하며, 이 모든 복수의 메카니즘을 오르쉬 대공이 피의 관리인을 두고 감독한다. 산악지방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부서진 사월』의 등장인물들은 적어도 4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죽음의 메카니즘에 간혀 있다. 관습법은 오랜 터키의 지배기간(1385-1913)에도 시행되었다. 공산주의 치하(1945-1991)에선 약간 위축되기는 했지만, 근친복수는 여전히 행해졌다. 알바니아 북부의 산악지대 사람들이 피의 복수에 빠진 원인 중 하나는 사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제도와 경찰력의 부재를 관습법이 대체한다. 『부서진 사월』은 근대(modernity)가 접근하지 못한 퇴화된 사회를 묘사한다. 퇴화의 원인은 관습법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가 이루어진 남부 지방과 달리 북부에선 카눈으로 대표되는 관습이 지배하며, 이것은 알바니아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뉴만(Newman)은 부서진 사월은 “고지대 알바니아인의 내밀한 삶을 포착한 ... 생생하고 어두운 소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작품은 공산주의 이전의 알바니아에 대한 우화임을 보여준다. 소설에서 알바니아 정부는 이 무법지대를 통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산악지대가 발전과 서구사상의 유입에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서진 사월』에선 알바니아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다. 소설에서 북부와 남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피의 복수를 둘러싸고 등장하는 인물들 중 관찰자가 있다. 베시안과 디안이다. 이 둘은 근대로 상징되는 남부에서 왔다. 전통을 고수하는 북부와는 달리 남부에선 카눈을 따르지 않으며 북부보다 훨씬 근대화되어 있다. 카다레의 소설에서 전통과 근대를 나누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이런(Byron)은 이런 인물들을 ‘구시대인’(old man)과 ‘신시대인’(new man)이란 두 그룹으로 분류한다. 신시대인은 베시안과 디안으로 대변되는 남부지방 사람이다. 구시대인은 그조르그, 베리샤와 크리에키크 가문, 산악지방 주민들, 오르니쉬 대공, 피의 관리인, 카눈 전문가인 알리 비낙(Ali Binak)과 그를 돕

는 의사이다. 대공, 피의 관리인과 의사는 피의 복수를 통해 혜택을 누린다. 이들은 피의 복수가 지속되는 한 피의 복수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다.

고원지대(Rafsh)는 퇴화된 사회이고, 가부장적 사회이다. 베시안은 산악지역을 “죽음의 왕국”(102)으로 부르면서, “라프쉬는 근대국가에 속하면서도—그러니까 내 말은 유럽 근대 국가라는 뜻이지. 원시 부족들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뜻이야—법·사법체계·경찰·법정, 요컨대 국가의 모든 속성을 내동댕이친 유일한 지역이야”(106)라고 설명한다. 죽음의 왕국에서 복수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케말의 작품에선 마을의 남녀가 모두 피의 복수를 충동질 하지만, 카다레의 작품에선 그 역할이 남자로 고정되어 있다. 여성들은 복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여성 인물들은 조연 역할만 한다. 오직 남자만이 소송으로 피의 복수를 실행한다. 남자들이 주역이다. 여성인물 중 남부에서 온 디안이 약간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그조르그나 베시안 같은 남성 인물과 달리, 디안은 감정을 거의 노출하지 않는다. 독자는 오직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그녀의 감정을 추론할 수 있다. 그녀가 여행 중 스쳐지나간 그조르그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것이 사랑의 감정인지는 알 수 없다.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알바니아 산악지역에선 살인으로 일어난 치욕을 관습법에 의해서만 해결한다. 핏값 대신 보상을 하고 화해의 맹세를 함으로써 모든 치욕을 없앨 수 있지만, 그런 화해의 요청이 일어나지 않는다. 복수라는 분노가 용서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확대된 사고”(221)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볼프 역시 가인은 ‘그들’인 동시에 ‘우리’라고 지적한다(143). 복수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타자를 포용하는 것뿐이다.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며, 동시에 타자는 내 자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140). 우리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험들을 함께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 자신과 타자 사이에 체제(피의 복수의 메카니즘)가 들어서면, 우리는 도덕적 불감증을 갖게 된다. 나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피의 복수에 참여하며, 그 복수의 사이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조르그는 갈등하지만 끝내 저항하지 않았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에 새겨진 증오를 지워야 한다. 그것은 제거해야 할 타자를 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타자에 대한 공간을 우리의 내면에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조르그의 죽음은 이 과정이 없을 때 폭력을 복수를 지속시키고 복수를 폭력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 III. 케말의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에 나타난 명예살인의 이중성

야샤르 케말은 터키의 호머로 불리며, 그 스스로도 ‘호머의 아들’이라고 불렸다(Tharaud 563). 그는 호머에게서 배운 시점과 기법을 사용하여 터키 문학을 근대화시키려고 했다. 이 작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터키의 전통과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릇된 전통이나 힘의 논리에 희생당하는 사회적 약자, 곧 여성, 유목민, 가난한 소시민과 도시빈민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었다(오은경 2005:235, 246). 케말이 1976년 발표한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는 명예살인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또 작가가 수감되었을 때 실제 명예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이기에, 사건의 묘사가 정밀하다. 주인공 에스메(Esme)와 하산(Hasan)은 혈연관계의 씨족 마을에서 산다. 『부서진 사월』에서와 달리 케말의 소설에서 현병대가 치안을 담당한다. 기본적인 공권력은 존재하지만, 명예나 복수에 대한 집념은 강하게 표출된다.

모든 비극의 씨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기인한다. 작품은 에스메를 두고 두 남자가 사랑한

데서 시작한다. 미녀인 에스메를 같은 고향 사람인 압바스(Abbas)가 사랑하지만, 에스메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던 할릴(Halil)은 청혼이란 방법이 통하지 않자 강제로 에스메를 납치한다. 애인을 빼앗긴 압바스는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결국 할릴을 살해하여 그녀를 다시 되찾으려 한다. 에스메를 향한 순정이 유명세를 타서 압바스는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 버렸다. 압바스의 순정을 노래한 노래까지 생겼기 때문이다(34). 하지만 이미 하산이란 아들이 있던 에스메는 거부한다. 아버지가 살해되던 날 6-7세 아이였던 하산도 함께 있었다. 그 순간을 하산은 기억한다.

밤이었다. 아버지와 엄마, 하산,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참이었다. ... 온 집안이 연기에 휩싸였다. 밥상, 엄마, 아버지 ...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울부짖음이 한 차례 들려왔다. ... 피가 보였다. 아버지가 밥상에 얼굴을 박고 엎어져 있었다. 머리카락이 불구르 필라브가 담긴 그릇 위에 떨어져 있었다. 퐁퐁 씹썩던 피가 흥건히 고였다. (15-6)

그 후 어느 날 밤 이슬람 사원에서 저녁 예잔이 울려 퍼지기도 전에 한 번 더 총소리가 들렸다. 할릴, 에스메, 그리고 하산이 모여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불꽃이 튀는 게 보였다. 총소리가 온 마을을 발각 뒤집어놓았다.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사방이 연기에 휩싸였다. 할릴이 밥상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온 집 안을 덮은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36)

그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된다. 추적을 당한 압바스는 결국 살해된다. 마을 사람들은 개들로 하여금 압바스의 시체를 물어뜯게 함으로 심리적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이다. 에스메는 아무런 법적,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안에 떨게 된다. 할릴의 죽음으로 씨족마을의 남성 질서에 균열이 생기자, 그 책임은 에스메에게 옮겨진다. 에스메도 끌려나와 삼촌들에게 두들겨 맞고 피범벅이 된다. 가족들 뿐 아니라 마을사람들도 달려들어 때리고 침을 뱉었다(17). 이들은 모두 할릴의 죽음을 압바스가 아닌 에스메에게서 찾고 있다. 오은경은 할릴의 죽음이 가져온 “[남성 질서의] 균열을 은폐할 속죄양”을 필요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명예살인은 “완전함을 회복하고 완전함이라는 환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면”이며 가부장제란 남성의 질서는 명예살인이라는 장치로 완성된다고 주장한다(2015:92-3). 에스메가 할릴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살 기회를 빼앗긴 피해자였음에도, 가족에겐 에스메가 여전히 할릴을 살해한 장본인일 뿐이다.

아버지가 죽은 후 할머니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삼촌들은 수시로 찾아와서 엄마에게 하산을 두고 떠날 것을 강요했다. 두루순 할아버지나 쿠르드족 식당 아저씨 솔로 같이 에스메에게 친화적인 인물이 있긴 하지만, 작품에서 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에스메에게 적대적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도 에스메는 여전히 외부인이다. 에스메는 가족에게 핍박을 받을 때, “원수를 갚으려면 압바스 형제들에게 가서 갚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따진다. 피의 복수의 법칙을 따르면 압바스 형제에게 가서 해야 하지만, 여기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상대가 강할 경우엔 피의 복수란 논리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상대방의 강한 힘이 결국 약한 나의 힘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균열의 가해자를 압바스가 아닌 에스메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에도 집에도 이상하리만큼 싸늘한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엄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이런 적막이 아마 열흘쯤 흘렀을까. 엄마는 밤

이 새도록 머리만 빗고 있었다. 뭔가 상념에 잠겨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는 줄곧 집 안을 서성거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겁에 질려 있는 게 분명했다. 한밤중이었다. 별안간 누군가가 문을 발로 걷어찼다. 문이 열렸다. 남자 셋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총을 쏘아댔다. 엄마는 방에 없었다. (42-3)

할머니의 친척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보다 섬세한 장치는 총을 통해 진행된다. 삼촌은 일곱 살 된 하산에게 집안의 유물인 손잡이에 자개가 촘촘히 박힌 장총을 선물한다. 하산은 그 총을 들고 “새, 고양이, 독수리, 참새 심지어 사람을 향해서까지 방아쇠를 당겼다”(11). 무스타파 삼촌은 총을 준 이유를 집안의 원수를 갚을 때 쓰라고 주었다고 강조한다. 삼촌은 하산을 만날 때마다 하산에게 엄마 에스메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주입시킨다. 피의 복수를 통해 실추된 가문의 명예를 일으켜 세우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하산이 삼촌의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자, 마을에선 에스메가 창녀란 소문이 돈다. 동시에 할릴이 꿈에 나타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했다는 입소문이 돈다. 아렌트가 지적하듯, 고립되고 폐쇄된 사회에선 ‘도덕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1968:221). 폐쇄 사회가 가져오는 고립과 침묵은 소설의 종결부까지 지속된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서는 이런 대화가 딱 끊겼다. 마을이 갑자기 침묵 속에 잠겼고, 딸그락 거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하산에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산은 매일 할머니 댁에 들렀지만 할머니는 입도 병긋하려 들지 않았다. 죽은 자만이 말을 하는 듯 할머니도, 마을도 침묵할 뿐이었다. (104)

피의 복수, 명예살인, 가부장제, 남성 질서 같은 개념들은 일곱 살 된 하산에게는 어려운 것들이다. 혈연공동체인 마을에서 에스메는 외부인이다. 그리고 모든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제 그 여파가 하산에게도 나타난다. 아무도 하산을 보고 웃지 않으며, 이제 하산은 “나무나 물과만 말벗이 될 수밖에 없[다]”(105). 하산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감은 절벽에 올라 바위 끝에서 건거나 뿔박질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산의 세부적인 감정은 노출되지 않는다. 카다레의 작품에서처럼 케말의 작품에서도 등장인물들의 감정은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억제되어 있던 하산의 감정은 한 순간에 발산된다. 그 작은 힌트가 엄마를 보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된다. 케말은 하산의 감정을 한 줄로 표현한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106)

엄마는 집 마당의 화덕에 불을 지피놓았다. ... 하산은 손에 들고 있는 권총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쓰던 총이었다. ... 하산은 떨고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탓이었다. 온몸의 살이 떨리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두 눈 앞의 불꽃 속에서 엄마가 아른거렸다.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이 발사되었다. 외마다 비명 소리가 났다. 한 번 더 총탄이 터졌다. 한 번 더, 한 번 더 ..... 그리고 머리카락과 살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번졌다. 하산은 갑자기 허망함을 느꼈다. 한 동안 손에 권총을 거머쥔 채 화덕 앞을 서성거렸다. 화덕 속에서 엄마의 머리카락이 타고 있었다. 하산은 아나바르자 돌산으로 도망을 갔다. (106)

케말의 작품 속 비극은 납치혼과 명예살인이 가져온 것이다. 하산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주입된 분노란 감정의 희생자가 된다. 에스메도 가부장제의 희생자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겪는 고통(혐오와 수치심)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아버지 할릴은

고착화된 남성성으로, 아들 하산은 무지로 에스메에게 고통을 준다.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결핍과 결여를 인정하고 남성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거스르는 순간, 여성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 에스메에게 창녀란 누명을 씌우는 것은 남성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창녀는 명예살인을 정당화시키며, 명예살인은 베일(veil)처럼 남성 질서의 불안정성을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 IV. 결론

이스마일 카다레의 『부서진 사월』과 야샤르 케말의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는 명예살인을 모티프로 삼고 있다. 알바니아와 터키라는 지리적 배경은 다르지만, 두 작가는 전통이 가져오는 경직성을 고발하고 있다. 카다레의 작품에선 알바니아의 고원지대가 무대이고 케말의 작품은 특정되지 않은 마을이지만, 두 장소의 공통점은 폐쇄되고 고립되었던 사실이다. 『부서진 사월』에선 남부의 근대(modernity)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산악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난다. 케말의 작품에선 혈연공동체로 뭉쳐진 마을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카다레의 작품에선 피의 복수에 참여하는 자만이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 동시에 케말의 작품에선 가부장제의 메카니즘에 순응하는 자만이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기에 에스메는 창녀로 남편을 죽인 장본인으로 낙인 찍힌 채 마을에서 배제된다.

두 작품 모두에서 우리는 희생자들(그조르그, 에스메)이 죄가 없는 사실에,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조직한 가해자(전통이란 이름으로 복수의 메카니즘을 운영하는 오르쉬 대공 또는 친족중심의 경제적 정치적 혈연공동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두 등장인물은 전통과 복수라는 메카니즘의 피해자이기에, 그들의 희생은 우리의 도덕의식에 위배된다. 두 인물은 모두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인 혐오와 수치심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수치와 혐오는 산악지역이란 마을이란 공동체가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강요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 혹은 가부장제란 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한다. 그조르그나 에스메는 그 질서가 갖는 폐해를 인식했으나 그것을 전복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볼프는 역사의 첫 단어는 폭력이며 이것이 마지막 단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2012:484). 문제는 그 두 단어 사이에도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카다레의 『부서진 사월』과 케말의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에서 명예살인의 문화와 배경은 다르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원리는 동일하다. 전통과 가부장제는 자신의 메카니즘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전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동안 피할 수 없었던 강요된 선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조르그나 에스메는 바로 메카니즘의 폐해를 인식했으나 실천이 요구될 때 멈췄다는 것이다. 삶의 모순 앞에 당혹하여 멈춰서는 것과 한 발 더 내딛는 것은 차이가 있다. 구원의 드라마 역시 폭력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끝난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듯, 불의한 자들을 포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오은경 (2005). “저항과 투쟁으로서의 글쓰기: 세계적인 터키 국민 작가 야샤르 케말.” 오은경 역(2005)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 서울: 문학과 지성사. 234-248.
- \_\_\_\_\_. (2015).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서울: 시대의 창.
- Achebe, C. (1959, 1994). *Things Fall Apart*. New York: Anchor Books.
- Arendt, H. (1968).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Viking.
- Carey, J. (2005). “Albanian Writer Beats off Top Contenders.” *The Independent*.
- Enzensberger, H.M. (1993). *Aussichten auf den Burgerkrieg*. Frankfurt: Suhrkamp.
- Gana, N. & Harting, H. (2008). “Introduction: Narrative Violence: Africa and the Middle East.” *Comparative Studies of South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28.1:1-10.
- Karare, I (1982). *Avril Brise*. 유정희 역 (2006). 『부서진 사월』. 과주: 문학동네.
- Miller, J.H. (1990). “Narrative,” in *Critical Terms for Literary Study*. Ed. Frank Lentricchia and Thomas McLaughlin. Chicago: U. of Chicago P.
- Newman, R. (1999). “The Ultimate Novel of the Blood Feud in Albania.” December 21. <http://www.amazon.com/Broken-April-Ismail-Kadare/dp/1561310654>
- Nuusbaum, M. (2004).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조계원 역 (2015).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 Sontag, S. (2003). *Rea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역 (2004). 타인의 고통. 서울: 이후.
- Tharaud, B. (2012). “Yasar Kemal, Son of Homer.”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54.4: 563-590.
- Volf, M. (1996).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박세혁 역 (2012). 『배제와 포용』. 서울: IVP.